

시래동 (온천)풀빌라 조성사업

사업승인 및 온천개발_1차

목 차

1. 사업개요
2. 상환계획
3. 사업지 현황
4. 사업운영 프로세스
5. 사업수익표
6. 참고자료(보도자료)

사업명	시래동 (온천)풀빌라 조성사업
사업목적	사업승인 및 온천개발_1차
사업자금	금 2억원
사업기간	1년
수익률	연 15%
필요자금 및 용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승인비 (1억원) - 건축 / 토목 설계 용역 등 2. 온천개발비 (5천만원) - 온천 부존조사 / 온천공 조사 등 3. 기타용역비 (5천만원) - 시행 및 운영관리
상환계획	사업승인 후 토지담보대출
사업정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소재지 : 경상북도 경주시 시래동 52번지 일원 2. 대지면적 : 3,093평 (10,224m²) 3. 주용도 : 풀빌라형 다세대주택 15동, 본관동 1동
비고	

○ 대출 상환 (사업승인 후 토지담보대출로 상환)

구 분	감정가액	대출금액	공제금액(개발비용)	상환가능금액	비 고
담보대출	2,474,208,000	1,608,235,200	1,200,000,000	408,235,200	(단위 : 원)

- 상기 내용은 추정금액임
-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018~2017년도 실거래가 자료 참조
- LTV(감정가 대비) 65% 적용

※ 참고사항

- 세부사항 투자계약서 참조
- 추가사항은 투자계약서에 기재

▶ 위치도 및 위성사진



▶ 건축배치도



▶ 현장 사진



▶ 현장 사진



▶ 현장 사진



▶ 현장 사진



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시행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투 자 금	총 지급액	비 고
10,000,000	11,500,000	(단위 : 원)
20,000,000	23,000,000	
30,000,000	34,500,000	
40,000,000	46,000,000	
50,000,000	57,500,000	
100,000,000	115,000,000	

※ 참고사항

- 사업수익률을 가정하여, 예상 지급액을 표기하였습니다.
- 모든 사업의 지급 시기 및 세부사항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릅니다.
- 총 지급액은 세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수익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중도상환 및 조기상환, 연체 등이 발생 할 경우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▶ 영남일보

사회

경주, 추석연휴 관광객 20만명... 객실 숙박률 98%

사회일반

기사내보내기

인쇄

송중욱기자 2019-09-16 기사가 쓴 기사 더보기

12~15일 주요관광지 인산인해
다양한 볼거리로 즐거움 선사



추석 다음날인 지난 14일 경주 교촌 한옥마을 광장에서 국악여행 공연이 펼쳐져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. <경주시 제공>

□ 추석 연휴인 12~15일 나흘간 고도(古鄣) 경주에 국내의 관광객 2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. 경주시는 추석연휴 주요 관광지인 동궁과 월지에 관광객 3만3천명, 대릉원에 2만5천명, 동궁원에 8천명, 주상절리에 1만명이 입장했다고 밝혔다.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와 관련

▶ 경주신문

경주엑스포 올여름 관광객 작년보다 3배↑

'가성비' 값 여름 Pool축제 · 술거리미술관 인기 한몫

경주신문 기자 / ginews21@hanmail.net | 입력 : 2019년 08월 27일

트위터

페이스북

밴드

카카오톡

블로그



올 여름 경주엑스포공원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로 늘어났다. 문화엑스포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~8월 25일 경주엑스포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은 15만2천216명으로 지난해 동기 5만394명보다 202% 증가했다.

문화엑스포는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여름 물놀이 프로그램인 '경주엑스포 여름 Pool축제'와 SNS에서 핫 플레이스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'술거리미술관', 보문단지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'경주타워'의 인기 덕분이라고 보고 있다.

또 '노 재팬'의 영향으로 해외 대신 경주를 찾은 관광객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. 경주엑스포는 7월부터 '국내 여행 덤 이벤트'를 펼쳐 경주로 온 관광객에게 혜택을 주며 국내 관광 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했다.

여기에 삼성, 현대, SK, LG, 포스코, 코오롱 등 대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은 수도권 관광객들을 경주로 불러들이는 성과를 냈다.